

제 108 호

대림 제 4 주일

1974. 12. 22.

쇼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성탄절 메시지 *



강생의 신비와 사랑의 은총

김재덕 주교

한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의 아기」라는 기쁨과, 그리고 이 아기는 「우리 중의 하나」라는 이 사실은 확실히 인간사회에 자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도다.”(이사야 9:6)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쁨이요, 우리가 지내는 위대한 축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오늘의 베틀레헴인 성전에서, 오늘의 팔구유인 제단에서 탄생하실 천상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천년전에 이루어졌던 위대한 강생의 신비는, 오늘도 이 미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전례」에서 이 놀라운 신비의 메시지를 받들었고, 이제 닳아들 「성찬의 전례」에서는, 그리스도를 황송하게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 중의 하나」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예식」에서는 우리 또한 그 분과 함께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누리는 새로워지고, 하느님의 백성은 형성되며 그리스도의 왕국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때, 당신을 떠난 죄인들만이 비천한 인간들만이 살고 있음을 보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내려다 보실때,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온 인류를, 당신의 백성으로 호뭇하게 미소지으시며 바라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죽해야 후일에 요르단강과 다볼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마태오 3:17, 17:5)라고 말씀하시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의 왕국인 하느님의 나라는 고요한 이밤에도 암흑을 헤치고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는 만남에서 비롯합니다. 일찌기 하느님을 멀리한 인류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심으로, 하느님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은 실로 하느님과 인간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재회의 밤」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화해함으로 새로워 집니다. 일찌기 하느님을 거역한 인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밤은 참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오랜 허물을 씻는 「화해의 밤」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나눔으로 풍요해 집니다. 일찌기 하느님과 우정을 잃은 인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친히 우리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또한 하느님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성아우구스티노)

이 밤은 실로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우정의 밤」이요, 실로 사랑의 혼인을 이룩하는 「일치의 밤」입니다.

이렇게 이 밤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우정을 되찾는 뜨거운 사랑의 밤이요, 실로 신비에 찬 거룩한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사회는, 좀처럼 암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메마른 사랑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비대해지는 과학 기술과 경제발전은, 정신 문화의 빈곤과 함께 인류 사회에 무서운 가치 기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인간의 기본가치는 정신에서 보다는 물질 위주에서 더 잘 평가되며, 따라서 오늘의 인간사회는 가장 화려한 문명의 개화속에서도 오히려 극심한 정신적 갈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퇴폐된 정신적 가치의 증진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사회안에 사랑의 풍요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명 인류 문화와, 특히 정신문화의 파스한 온상이며, 모든 가치기준의 조화입니다. 실상 오늘의 물질 문화의 비대증과, 정신문화의 빈곤증도, 오로지 사랑의 결핍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철학을 논하고, 과학의 만능을 외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정작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일고 있는 부정부패와 불의, 인권유린과 권력의 남용, 사치, 허영과 방종등의 소용돌이속에서, 현대 세계를 구하는 길은, 오직 사랑의 길 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며, 기쁘게 하고 화해의 무드를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온 겨레위에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은총이 오늘처럼 소망스러웠던 때도 일찌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빛, 주님의 평화와 희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2면으로 계속)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천주 성자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과연 그분은 권능의 소유자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 스스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것이 아닙니다.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시초부터, 가난하고 겸손한 가운데, 사랑의 복음을 퍼실함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정의를 부르짖음으로 하느님 나라의 터전을 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느님의 나라」는 마음안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금력이나 권력으로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요, 따라서 권력과 금력이 이 교회를 영위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지닌 교회의 기초는 다른아닌 그리스도의 형제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같이 하는 그것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사회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병든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질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사회속에 탄생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성탄날 밤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 마음에 뿐만 아니라 모든이의 마음속에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랑의 등불을 밝힙시다.

나는 작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하여 "1974년의 새해를 하느님의 축복안에 서광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 드리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에는 정의구현과 민주회복을 애타게 외치는 염원의 물결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이 암흑의 한해가 마지막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해동안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간단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또 계속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에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기도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974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탁아오는 새해 1975년은, 진정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위에 자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우리 다함께 뜻을 모아 기도 드립니다.

1974년 12월 22일

(친주교 전주 교구장)

***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 **입당송** 하늘은 위로부터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비처럼 정의를 내리라, 땅은 열리어 구원을 싣뜨게 하라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이사야 7:10-14)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리라.

□ **증계송** ○야훼님 들시려 하시니, 야훼님은 영광의 임금이시다. 야훼님 것이로다. 땅이며 그 안에 가득찬 것이 온 누리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바다 위에 그 터전을 마련하시고 강물위에 그물을 굳이 쳤도다

□ **제2독서** (로마 1:1-7 성서 p. 337)

예수 그리스도는 다위의 후손이요 하느님의 아드님.

□ **알렐루야** 알렐루야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로다.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1:18-24 성서 p. 2)

다위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 탄생하시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모든이가 다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권리 약육에 눈이 어둡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이나라 발전의 저해를 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어 하루속히 이들이 불쌍함을 면할 수 있도록 은총주소서 ○

3.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물심양면으로 조금이라도 사랑을 안겨줄수있는 덕을 모든이에게내려주소서 ○

4.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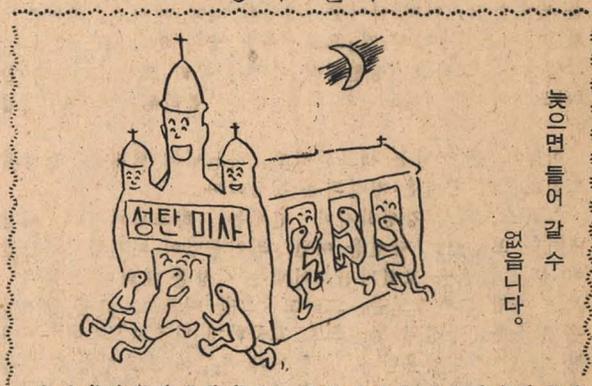
주여 이제까지 당신의 백성임을 고백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의인만도 못한 잘못을 너무치도록 은총주소서 내적준비와, 진리와 정의를 증명하는데 앞장서도록 굳센 의지를 주소서 ○

+ 주여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에 맞는바를 청하게 하시고 또 청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불행」

□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엠마누엘 부르리라.

*** 순정이 산책 ***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⑥ 6094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전화 ⑥ 5013

김원준(야고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⑥ 6289

□ 앙케이트 □

성탄을 맞이 하며, 또 화해를 보내는 미흡했던 지난날의 아쉬움과 뒤영김을 결산 하면서 여기 형제들의 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

1. 크리스마스 카드
2. 새해 설계 (조국 · 교회 · 나)

* * * *

1. 불우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이 담긴 글과 카드를 보내고 싶다.
2. ○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또 불신 풍조의 현 사회를 참작하여 지난날을 반성하고 결실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간의 벽이 없는 75년이 되길 바란다.
 - "나" 하나 모두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 조국의 발전에 기할수 있도록 자신을 연마시키겠다. <중 2년 승>

1. 1년동안의 생활을 마음속에 수놓아 성모님께 드리고 싶다.
2. 여야의 치열한 경쟁, 부정 부패의 인간의 대열들에게 다정스러운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어 74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 개인 주의적 종교가 아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 숙명적 의무감의 생활보다는 먼데 눈을 두고 적극적인 생활태도에 임하겠다. <고 3년 김>

1. 지인들, 특히 그간 소식이 뜸 했던 분들에게
2. 위로부터 받은 권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취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백성의 소리"를 들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구성원 자자가 노력해야겠다.
 - 의도보다는 내실을 <대학 0년 범>

1. "사랑의 정신"을 외치다 돌아가신 스승의 정신을 모든이에게 카드에 실어 전하고 싶다.
2. ○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치안에서 다함께, 서로서로, 존경할줄 아는, 조국을 위해 사는 정신을 모든이가 갖고 생활해 나가길.
 - 수고하고 짐진자의 벗인 교회는 내적 쇄신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아름다운 표양을 낳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을
 - 「결」과 「밖」과 「향」보다는 「속」과 「안」과 「질」을 중요시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 주어진 재능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평신도 한돌>

1. 카드가 올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께
2. ○ 부정 부패가 일소되어 대화속에서 평화스럽게 살았음 좋겠다.
 -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본당내 실무자들은 남의 사정을 알아줄줄 알고 보다 부지런히 뛰어졌으면.....
 - 이해와 사랑에 인색치 않도록 해야 되겠다. <조 수녀>

1. 바쁜 성탄준비 중에도 청이 담뱃실린 사연과함께 카드를 보내주시는누나수녀에게
2. 정치 지도자 들이 권모술 수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결백한 봉사에서 오는 국민의 성원에 의해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총화단결된 조국이 될수 있도록 새해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의 그리스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신했으면.....
 -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기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셉 신부>

□ 양지쪽 □

요십이 (74) 김병오



□ 시간안내 □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저 1,200원
마더메리사
멜컨 마그렛즈 400원

“동정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하신 말씀이 이루어 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오 1:22, 23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철·도장청부
대동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 멋을 창조하는 집 ※
사슴양장점
 ※ 교우에게 특별봉사
 드레스 무료 제공
 김형택(바로로)
 전주제신청 앞
 전화 740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주 해성 중학교, 전고와 공고에 연 2년 수석 합격 차지
전고 수석 합격-오근엽, 정시영, 공고 수석 합격-조승국, 김철호(차석)
2. 전주 성심 여중학교, 전주여고와 영생여자 종합고등학교 수석 차지
전주 여고-장문임, 영생 여고-최인숙
3. 중·고 연합회 「치명탑」 제 2호 발행
4. 교도소 위문 오늘 메아리 합창단의 교도소(10시) 위문공연과 함께 전동 천주교회 사도회에서 마련한 위문품과 음식을 전달(교도소 배스가 9시 30분에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전동성당 경유)
5.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 ①신년 교례회 (주교님을 모시고 신년하례)
때 : 1975년 1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가톨릭 센터 강당 회비 : 700원
- ②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새해를 보다 계획있게 준비 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2회에 걸쳐서 공동체 목상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제 1차 공동체 목상회
참가범위 : 성직자, 수도자, 직업인, 때 : 1975년 1월 1일 오후 2시-1월 3일 오후 5시까지 (2박3일)
장소 : 가톨릭 센터 참가비 : 2000원 (숙박비) 기타 경비는 센터에서 충당하겠음
- 제 2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참가범위 : 성직자, 수도자, 일반평신도, 참가비 : 2,000원 (숙박비) 기타경비는 센터에서 충당하겠음
때 : 1975년 1월 9일-1월 11일까지 (2박3일)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중암)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김영진

1. 영세식 : 12월 12일 오전 9시
2. 교리반 전체 방화 : 12월 22~1975년 1월 말까지
3. 신용조합 이사회
12월 28일(토) 오후 4시부터 신용조합 사무실에서
안건 : 연말 결산, 정기 총회 준비
4. 성탄절 미사시간 : 24일 밤 12시, 25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7시 30분
5. 고등부 학생회 「중앙의 밤」 행사 : 23일 오후 7시

2. 불우한 이웃 돕기 성탄때 특별 헌금 있음
3. 성우회 정기 총회 : 성탄 자시 미사 후
지난 주 성미 2말 4되, 누계 339.2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행로 병원(갱생원) 성탄 위문 예정 : 많은 연보와 한 가정에 1점 이상 의무 지참 요망.
2. 판공 관계로 예비자 교리 없음 : 오늘
3. 마을리 공소에 부제님 출장
4. 신용조합 이사회 : 12. 27일 저녁 미사 후
5. 축 결혼
원종수(노례조)군, 임정례(르사)양 26일 10시
김중문(도마)군, 김정남 양 28일 10시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임원 및 애령회 간부 회의 : 공식 미사 후
2.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 1가 합인이 : 2,000원, 인후 1가 1,000원
누계 : 3,000원, 누계 : 1,848,152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승협
사도 회장 이헌재

1. 축 영명 : 26일 본당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식 : 25일 10시 미사 후 축하연 : 26일 12시
2. 성탄미사 <24일> 저녁 8시 : 초·중·고생 미사(밤 12시)자정 미사 <25일> 9시, 어린이 미사, 10시 : 공식미사, 19시 : 영세자 축하미사, 영세자 혼배미사
3. 영세식 : 23일 밤 7시
4. 방ziger 삼회 : 28일 오전 10시
5. 신용조합은 조합에 통장 제출 요망 (추천권 찾아가지실) : 26일 연합회 감사 준비 있음.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확대 회의 : 공식 미사 후 즉시
2. 24일 자정 미사전에 간단한 프로그램 있음
3. 어린이 성세식 : 12. 29(일) 저녁 7시 미사 후
4. 축 결혼 : 12월 23일 11시
신랑 최창식(베드루가니시오)군, 신부 임복례양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탄 영세 (유아 세례 같이) : 23일 저녁 미사 후

금주의 순정이 은인
이 헨리고(종두) 신경 외과 의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창제부 신태인읍	성탄시 선물 교환	3,125원	제 3 지구	창인동 황등	성탄 전야 목상회	24,485원
		성모상 제작 영세자 준비 참고 성탄절을 뜻 깊게 보냅니다	13,040원			성탄을 뜻 깊게 보냅니다	
제 2 지구	대야동 월명동	관공성사 누락자 24일 밤에 불것	11,950원	제 4 지구	중노동 복서학동 전	신용조합 이사회(28일 오후 4시)	43,222원
		판공성사 누락자 24일 밤에 불것	3,095원			사도회 임원 및 애령회 간부 회의	
제 3 지구	고금여주현동	성탄 세례식(24일)	33,055원	제 5 지구	남원주 장계진	사도회 확대 회의	11,215원
		성탄 영화 및 성급 발표	21,745원			성탄을 뜻 깊게 보냅니다	
		레지오 마리에 연중 친목회	12,860원			사계 양성 후원회 기금 실적 보고	4,460원